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성공과 협회 활성화 방안

성공적인 결핵관리·퇴치
사업방향 설정 토대 마련의 장



대한결핵협회는 5월 24일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성공과 대한결핵협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개최했다. 강의 진행으로는 이종구 서울대학교병원 대외정책실장과 전병률 질병관리본부장, 권동원 본회 부회장(前 WHO 결핵관리 자문관)과 김상환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부총재가 맡았으

며, 정근 회장은 이에 앞선 인사말에서 "협회가 지난 60년 동안 성공적인 결핵사업을 펼쳐온 결과, 결핵 환자 감소에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게 됐지만,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에 발맞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통일 이후를 대비해 북한 결핵퇴치에 협회가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1	대한결핵협회 발전방향	이종구 서울대학교병원 대외정책실장
주제발표2	국가결핵관리 종합계획 및 추진과제	전병률 질병관리본부장
주제발표3	대한결핵협회 창립 60주년 즈음한 결핵연구원의 역할	권동원 대한결핵협회 부회장 (前 결핵관리 자문관)
주제발표4	결핵, 북한결핵, 생명 그리고 비전(꿈)	김상환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부총재

고위험군 잠복결핵 예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잠복결핵 고위험군인 류마티스 환자 등의 올바른 결핵관리 및 검사 정보 공유를 위한 장



대한결핵협회는 5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잠복결핵 고위험군 결핵예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결핵 위험이 높은 면역억제제에 대한 설명과 최근 결핵 고위험 환자에게 1차 시행이 가능하도록 보험 급여가 인정된 인터페론-감마(IFN- γ , InterFeroN- γ)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최근 보험 급여 기준이 결핵 고위험 환자에게 1차 시행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인터페론-감마 검사의 보험 인정 기준 고위험군에는 5세 이상의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 예정자, HIV 감염인, 장기 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등이 속한다. 간담회는 박성환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를 좌장으로 ▲면역억제 상황에서의 결핵 역학(오경현 결핵연구원 교육기술협력부장) ▲잠복결핵감염의 진단에서 인터페론감마 검사의 유용성(심태선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

과 교수)에 대한 발표가 있는 후, 이에 대한 자유 토론 시간으로 진행됐다. 자유 토론에서는 김태환 한양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정승민 서울아산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차훈석 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김일복 대한결핵협회 STOP-TB운동본부 본부장, 서기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행사가 끝난 후 김일복 대한결핵협회 본부장은 "이러한 잠복결핵의 관리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이 주도하여 민간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보험급여기준의 변경에 따라 결핵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인터페론-감마검사가 대폭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결핵협회 차원에서도 동 검사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1	주제발표2	주제발표2에 대한 자유토론 1	주제발표2에 대한 자유토론 2
면역억제 상황에서의 결핵역학 오경현 결핵연구원 교육기술협력부장	잠복결핵감염의 진단에서 인터페론-감마 검사의 유용성 심태선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서기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박성환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다양한 면역억제 상황에서의 결핵발병 사례를 제시하면서) 결핵은 대부분 잠복상태로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력 억제 상황에서 환자는 잠복결핵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는 기존의 피부 반응검사보다 결과 판독이 간편하고 결핵균 특이항원만 이용하므로 위양성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TNF 길항제 치료를 받는 환자는 결핵 고위험군에 해당되므로 정기적으로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결핵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인터페론-감마 검사의 유용성과 류마티스 환자의 정기적인 잠복결핵 검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현재 변경된 보험고시에 검사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으며, 잠복결핵 검사가 정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진단의 판단에 따라 그에 맞는 근거를 갖고 시행하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인터페론-감마 검사의 보험 확대는 보다 많은 결핵 고위험 환자가 결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이 면역억제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잠복결핵 검사를 통해 결핵에 대한 예방 치료를 해야 한다.

결핵퇴치와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

북한 및 저개발국 결핵퇴치방안 마련의 장



우리나라는 1950년대 초 인구 2천만 명 중 약 6.5%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결핵환자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1953년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되고 활발한 결핵퇴치사업을 진행해온 결과 지금은 결핵 환자가 10만 명 이하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이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은 물론 세계 결핵 후진국에 결핵 관리 인프라를 전수하는 위치에 이르렀다. 더불어, 통일 이후의 의료상황에 대비하여 우리는 현재 70년대 수준인 북한의 결핵상황임을 볼 때, 민간차원의 북한 및 저개발국가 결핵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에 대한결핵협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국내뿐 아니라 북한 및 저개발국가의 결핵퇴치에 앞장서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북한 및 저개발국 결핵퇴치방안”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지난 7월 10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정근 대한결핵협회 회장, 인

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등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결핵 현황 및 관리대책’, ‘북한 결핵현황과 인도적 지원’, ‘대한결핵협회의 60년’ 등에 대한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문정림 의원은 먼저 인사말에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한반도 신라구축을 위해서는 보건문제, 특히 북한의 심각한 현안인 결핵에 대한 기술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해 교류의 물꼬를 트고 통일 이후의 의료상황에 대비하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했으며, 이어 정근 회장은 “남북이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인도적 차원에서 교류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장 시급한 분야가 보건 분야, 특히 결핵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유진벨재단, 한국가톨릭결핵사업연합회 등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와 시민 1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제발표1	국내 결핵현황 및 정부의 관리대책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장
주제발표2	북한의 결핵 예방, 진단, 치료 체계에 관한 보고	인요한 연세 세브란스 국제진료소장
주제발표3	북한 이타주인 건강문제의 이해	전정희 통일부 하나원 간호사무관
주제발표4	대한결핵협회 60주년과북한해주구세요양병원	정근 대한결핵협회장

결핵예방을 위한 “전국 릴레이 건강강좌”

결핵·류마티스관절염·만성질환에 대한
건강강좌 실시



대한결핵협회는 류마티스 및 만성질환 환자 등의 결핵 발병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체크캠페인의 일환으로 6월 11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 지역에서 결핵·류마티스관절염·만성질환에 대한 체크캠페인 건강강좌를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체크캠페인은 6월 11일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문화센터, 6월 21일 부산 온 종합병원, 7월 17일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실시됐다. 결핵 및 류마티스 질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특히, 결핵 고위험군인 류마티스 및 만성질환자, 고령층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올바른 질환 관리정보 및 사전 검사 방법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결핵 발병률, 유병률,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나라로 국민 3명 중 1명은 잠복결핵(몸 속에 균만 잠복해 있고 발병하지 않은 상태) 감염자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과 같이 자가면역계 이

상으로 발생하는 류마티스 질환 및 만성질환자는 바이러스나 결핵균과 같은 감염 질환에 대응할 면역력이 낮은 결핵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질환자의 경우 치료 전 잠복결핵 감염 검사를 통해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최근 5월 1일부터 TNF(종양괴사인자) 억제제를 투여하거나 투여 예정인 류마티스 환자에게 잠복결핵 검사인 인터페론-감마 검사가 1차 시행이 가능하도록 보험 급여가 인정됨에 따라 보다 간편하고 정확한 결핵 감염여부 확인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TNF 억제제 사용 시에는 결핵의 위험성이 낮은 안전한 치료제를 선택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결핵협회에서는 국민들이 사전에 결핵에 대해 조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대국민 결핵예방 건강강좌 및 결핵 검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체크캠페인 건강강좌 일정

구분	일시	건강강좌 장소
서울	6월 11일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문화센터
부산	6월 21일	부산 온 종합병원 지하 1층
광주	7월 17일	조선대학교병원 2층 하중현 홀